

열리는 이명박 시대

거센 후폭풍 직면... 지각변동 예고

■ 대선 참패 범여 행보는

신당, 내분 억제·집단지도체제 목소리 높아

민주, 당 쇄신위 구성·중도정당 결성 가닥

17대 대선에서 참패한 범여권이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면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범여권은 당장 111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최소한의 견제세력을 확보해 건강할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분을 억제하면서 내부 체제를 재정비하고, 사분오열된 세력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내년 1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체제를 출범시키는 것을 계기로 당의 면모를 일신하고 18대 총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당선자에게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참패를 당했지만, 책임을 묻거나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많지 않다. 탈당 등 이탈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대선 패배가 정 후보 개인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사실상의 여당이었던 신당 세력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이자 심판이었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신당 이인영 의원은 "지금 책임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으며, 한 두 사람이 모든 책임

을 다 걸머질 문제가 아니다"며 "반성과 새로운 출발, 쇄신과 굳건한 단결,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잘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측근인 이광재 의원은 "모두의 공동책임인데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도체제 구성과 관련, 신당이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김근태, 민주당 탈당파, 시민사회 등 6개 계파로 이뤄진 만큼 1월 전당을 통해 계파별 지분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집단지도체제로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1월 전대에 나설 것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김근실 전 법무장관, 손학규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 정세균 전 열린우리당 의장, 김한길 의원, 추미애 전 의원 등이다.

그러나 신당 내에서는 "분열을 감수하더라도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총선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집단 탈당을 통해 제3세력을 형성하거나 아예 개

별탈당해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서려는 의원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비록 이명박 후보가 0.7%라는 무의미한 수준의 득표에 그쳤지만, 당 세력은 보존돼있는 만큼 '노 대통령의 위성정당'인 신당을 정치적으로 퇴장시키고 중도개혁통합정당을 결성해 야당 중심세력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당 쇄신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고 오는 26일께 박상천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진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창조한국당은 대선 막판까지 후보 단일화를 거부하며 비타협적인 독자노선을 고수했지만, 문국현 후보가 5.8% 득표에 그치면서 총선까지 밀고 나갈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 더욱이 대선을 치르면서 고갈된 자금도 결핍되어 되고 있어 창조한국당은 진퇴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7대 대선 패장의 변

"총선서도 패배뻔 호남 위기 넘어 민주주의 위기"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대선이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징벌적 성격으로 치러졌다. 후보의 경쟁력은 참여정부의 실정에 묻혔다. 또한, 민심 이반이 상상 이상으로 컸다. 여기에 범여권은 분열했다. -민주와 개혁 시대가 저물었다는 지적이었다. ▲그렇지 않다. 아직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이 요구되고 있고 우리 사회는 보다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BBK 특검이 향후 정국을 흔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모든 것은 특검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네가티브 성격의 공방을 펼치지 않을

것이다. -대선 패배 책임론과 노선 투쟁 등에 따른 분열이 거론되고 있다. ▲가능성이 낮다. 한나라당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와 심지어 언론까지 장악한 상황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붕괴된 민주주의 위기 국면에서 분열 세력은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다. -총선 패배와 함께 호남만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호남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공감한다. 호남의 위기에 민주주의

위기가. 신당이 우선적으로 대오각성,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하며 한나라당의 권력 독점에 대한 국민의 견제가 필요하다. -범여권의 단일대오 형성이 필요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은 총선의 기록에 연연, 대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화될지는 회의적이다. 특히, 민주당은 사실상 와해 수순에 돌입한 것 같고 창조한국당은 저조한 득표율로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지역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실망시켜 송구스럽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보여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친노세력들이 여론 왜곡... 그들과는 통합 못해"

박상천 민주당 대표



-대선 결과가 참혹하다. ▲민주당 대표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을 드린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면서 대통합 신당과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갔다. 신당 후보가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민주당의 붕괴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당측의 희망사항이다. 세가 약해졌지만 절대 붕괴되지 않는다. -대표로서 책임론에 휩싸여있는데. ▲오늘 당 쇄신위를 꾸리기로 했다. 쇄신위가 성역없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오는 26일 중앙위에서 추진한다. 여기에

는 대표의 거취 문제도 포함된다. 최고위원과 당직자들은 이미 사퇴했다.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맞서기 위한 범여권의 단일대오 형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신당과의 통합 등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 가장 좋은 방안은 민주당과 신당의 중도세력이 결합하는 것이다. 친노세력이 제의된 통합 정당이 탄생된다면 한나라당을 견제할 야당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친노세력의 참여 여부가 그렇게 중

요한가. ▲친노세력이 포함된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고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을 견제할 야당으로 성장할 수 없다. 이번 대선이 참여정부와 노무현 노선에 대한 심판 아니었는가. 그들의 진보 노선은 이제 대안이 될 수 없다. -친노에 대한 반감이 지나친 것 같다. ▲민주당의 중도개혁노선을 거부하고 있는 친노세력은 양당의 통합논의 과정에서 마치 민주당이 총선을 지분을 요구하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 결국 통합을 무산시킨 바 있다. -지역민에게 호소하고 싶은 말 있다면. ▲민주개혁세력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대선에서 패배한데 대해 사죄드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백의종군 후 총선서 재기 모색할 듯

정동영 내일 광주행... 향후 거취 장고

대선 참패로 11년 정치인생에서 최대 위기를 맞은 통합민주당 정동영 후보가 22일 광주에 내려와 한 복지시설에 사나흘 머물며 피정(避靜)의 시간을 갖는다. 그의 거취는 대선 이후 거센 후폭풍에 직면한 범여권의 진로찾기와도 맞물려 있어 관심을 끈다.

정 후보는 20일 신당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산식에 참석, 선대위 관계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정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선거는 졌지만 우리는 단합했다"며 "국민이 저희의 손을 붙잡아주지 않았지만 저희는 하나가 돼 열심히 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어 21일 '낙선 사례' 차고형인 순창과 전주 등 전북지역을 찾은 예정이다. 또 22일에는 부인 민혜경씨와 함께 광주로 내려가 광산구의 가톨릭단체가 운영하는 정신지체장애인시설인 '사랑의 집'에서 사나흘 머물며 '피정'의 시간을 갖고 강행군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면서 향후 거취에 대한 '장

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의 '퇴장'은 어디까지나 '휴남'을 도모하기 위한 암중모색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의 역할론은 범여권이 마땅한 중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인식과도 무관치 않다. 이에 따라 정 후보가 대선 이후 펼쳐질 'BBK 특검' 및 총선 정국에서 일정부분 영향력을 행사하며 '패'를 모색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전당대회에서 정동영씨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거나 다른 계파와의 연대를 통해 당권 장악에 성공할 경우 정 후보가 막후 구심점으로 재등장, '차기'를 위한 교두보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2009 학년도 공립학교 (유치원·초등·중등·보건) 교사임용시험? 관점없는 공부는 낭비일 뿐입니다! 2009학년도 임용시험 3단계 전형으로 변경됩니다. 1차 선택형 필기시험 영향력 축소, 2,3차 시험 배점 확대 및 적격자 선별기능 강화. ☆ 광대영교육학 겨울방학 특강은 새로운 전방제에 맞춘 교직교양 필수강좌이며, 1차 교육화시험은 물론 2차 논술시험을 위한 기초 다지기 '방학론' 강좌입니다. http://www.naeyoung.com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신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자기자랑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차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 교실 특강.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E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주회 8주 2개월 *교육비: 무료(미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교육장소: 동부경찰서뒤 무등고시학원 *접수방법: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 2009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 겨울방학 교육학+전공특강. 2009학년도 새롭게 변화된 시험제도 곧 새로운 기회!! 최고의 전문강사를 자랑하는 현대고시학원 교수들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교육학 김인식 교수(직강) 개강 1월 10일(목) 10:00~19:00. 초등교육 배재민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3:00~19:00. 유아교육 박수정 교수(직강) 개강 1월 7일(월) 15:00~21:00. 국어 유광재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0:00~18:00. 국어 류호강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0:00~17:00. 과학교육 류호창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4:00~18:00.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합격설명회 = 배주- (화,목) 오후 6시- (토) 오후 3시. 현대고시학원 062)222-6790

= 겨울방학 대 특강!! = 7,9급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 교세, 관세, 감사, 법원, 검찰, 교정, 보호, 소방, 전자, 지공, 토목, 건축, 물리, 환경, 세무, 관공, 감사, 법원, 검찰, 교정, 보호, 소방, 전자, 지공, 토목, 건축, 물리. 개강: 1월 2일 주·야 (총합)반모집 (현 재 수 알).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무등고시학원 222-4560. www.hanbitgosi.co.kr = 2008년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2008년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거침없이 합격하라! - 한빛이 응원합니다! 7급 공무원 겨울방학 대특강. 개강: 1차 12월 17일, 2차 12월 22일, 4차 1월 2일. 한빛공무원학원 062)252-0252